

성모승천 대축일 복음 나누기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1) - 루카 1,39-56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9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47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48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50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51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52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53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54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56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잠시 묵상 후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앞부분의 복음 내용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과 즈가리야(노사제)는 그렇게도 갈망하던 아기를 만년(晩年)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에 의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열두 살 혹은 열네 살 된 나자렛 시골 처녀인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으며, 또한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 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힘을 약하게 느끼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절) 마리아는 어쩌면 여러 가지의 복잡한 마음을 안고서 대략 120Km 정도 떨어진(보통 4일 정도 걸리는 길) 유다 산골까지 혼자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늙은 친척 엘리사벳을 도우러 간 것이 분명합니다. 당찬 모습이지요. 그녀에게는 분명한 자의식(自意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0절) 세상에서 가장 복된 두 어머니와 두 아이가 만나는 참으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알아보기 전에 뱃속의 아기가 서로를 알아보고서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이 구약성경 내내 해 주신 모든 약속의 실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 안에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모든 역경에서 구해 주실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느님의 약속을 믿은 마리아의 믿음은 곧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46-55절까지의 마리아의 노래(마니파카)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비롯될 모든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의 목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여종’이 목숨을 걸고 하느님께 순명했을 때 세상은 그 여인을 복된 여인, 거룩한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입을 열어 전능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자,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신 마리아께서는 복되신 동정녀이시며, 구세주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마리아께서 바치신 기도는 철저하게 하느님의 종으로 사셨던 그분의 삶의 노래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곧 그러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은총이며 보답입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내가 정의하는 사랑과 이웃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